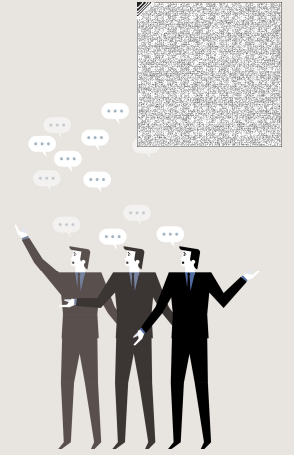


기억이 나십니까? 교리경시대회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부위원장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교구 교리경시대회에 몇 차례 나갔었는데, 아쉽게도 모두에게 주는 참가 선물 외에 상을 탄 기억은 없습니다. 그 옛날 선비들이 과거를 보듯이 햇볕이 내리쬐는 신학교 운동장에 모여앉아 시험지에 나름 정성껏 답을 적어 내려갔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시험치는 학생들 사이로 까만 수단을 입은 젊은 신부님들이 왔다 갔다 하며 시험감독을 했습니다. 친구의 시험지를 훑쳐보거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나부끼는 검은 수단 자락을 보면 자세를 고쳐 앉곤 했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신부님이 아니라 수단을 입은 고학년 신학생들이었습니다.

1978년 11월 5일 자 주보를 보면 중·고등 학생 교리경시대회에 1,600여 명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시 주보에 실린 자세한 소식입니다.

*중고등학생 교리경시대회 1,600명 참가

지난 10월 29일 본 대교구 주최로 열렸던 교리경시대회는 57개 본당에서 1,000여 명의 중학생과 6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중략)…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교리시험은 한 시간으로 끝나고 점심 식사와 오락시간에 이어 3시에는 참가자 전원이 미사에 참례, 미사 후 시상식이 있었는데 금년도 교리경시대회의 단체우승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혜화동 본당이 차지했다. 한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7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수상자 명단 …(중략)…

1978년 지금부터 41년 전 서울대교구 교리경시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지금은 6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본당을 대표해 상을 받고, 본당에 돌아가서

*중고등학생 교리경시대회 1,600명 참가

지난 10월 29일 본 대교구 주최로 열렸던 교리경시대회는 57개 본당에서 1,000여 명의 중학생과 600여 명의 고등학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대회장을 전후 돌아보신 경주교에서는 진지한 태도로 교리시험에 임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자세가 마치 기도하는 모습과 같다고 만족해 하시고 이들을 지도하는 교리교사들은 교리지식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격려의 말씀을 하셨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교리시험은 한 시간으로 끝나고 점심식사 후 오락시간에 이어 3시에는 참가자 전원이 미사에 참례, 미사 후 시상식이 있었는데 금년도 교리경시대회의 단체우승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혜화동 본당이 차지했다.

한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7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受賞者 명단

〈고등부〉

- 단체상 : 1 등-혜화동 본당
2 등-대림동 본당
3 등-왕십리 본당
개인상 : 최우수-김광철(혜화동)
1 등-이정기(당심리)
2 등-맹찬호(봉천동)
3 등-최요한(대림동)
4 등-정규영(돈암동)
5 등-김성준(수유리)

〈중등부〉

- 단체상 : 1 등-이태원 본당
2 등-봉천동 #
3 등-대방동 #
개인상 : 최우수-손현주(한강)
1 등-이인우(이태원)
2 등-유영호(봉천동)
3 등-차승연(대방동)
4 등-서미나(상도동)
5 등-신미준(이태원)
참가상 : 1 등-금호동(92명)
2 등-봉천동(79명)
3 등-대방동(74명)

신부님과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겠지요. 함께 박수치고 환호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의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그 당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배운 교리가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천여 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교리경시대회를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광경입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학생들이 그런 추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교리경시대회에서 영감을 받아 홍보위원회는 가톨릭인터넷 굿뉴스와 함께 ‘모바일 복음 쓰기 100일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1500여 개 성당 1만 4천여 명이 스마트폰 <가톨릭> 앱으로 매일 복음을

쓰고, 복음 묵상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길에 또는 일과 중에 잠을 내어 스마트폰으로 혼자서 복음을 쓰지만 실은 모두가 함께 모여서 쓰는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 묵상 나누기 글을 통해 다른 이의 기도와 묵상을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임 신부님이 주일학교와 단체에 모바일 복음 쓰기를 적극 권하고, 자체 시상 계획인 성당도 여러 곳이라고 합니다.

이번 100일 이벤트는 오는 2월 29일 일단락되지만, 가톨릭인터넷 굿뉴스는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신자들이 복음에 맛 들일 수 있는 계기를 다양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이젠 인터넷 공간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사목에 잘 사용하는 것도 교회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